


**오늘의
게시판**
락 뮤지컬 왕! 그의 이름은 오후 7시30분 호남대 쌍촌캠퍼스 소극장

행사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광주 328개·전남 881개 투표소에서 진행.

▲2006 젊은 연극제 참가작
락 뮤지컬 왕! 그의 이름은=6
 월 3일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소극장.

▲제 13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3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신춘가곡의 밤=3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목요 열린국악한마당 송화자 교수 초청 가야금 연주회=6월 1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6월 1일~4일까

지 오후 4시, 7시 궁동예술극장.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광주 328개·전남 881개 투표소에서 진행.

▲2006 젊은 연극제 참가작
락 뮤지컬 왕! 그의 이름은=6
 월 3일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소극장.

▲제 13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3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신춘가곡의 밤=3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목요 열린국악한마당 송화자 교수 초청 가야금 연주회=6월 1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6월 1일~4일까

▲무등조형회전=6월8일까지

▲무등골 예술시장 프리미켓전 '푸른6월'=6월

1일~13일까지 일과갤러리.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6월1일~30일까

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장.

▲온나 사진전=6월1일~7일까지 롯데화랑.

▲신명자 개인전=6월1일~7일까지 무등갤러

리 별관.

▲무등조형회전=6월8일까지 자마갤러리.

▲현대시진전 '앵글의 휴머니티'=6월25일까지

시립미술관 분관.

▲지산갤러리 기획프로젝트 '아이콘'전=6월7
 일까지 지산갤러리.

▲국제현대미술 축산전=6월2일까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중국 11명·일본 11명·한국 30명 등
 52명의 작가들의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전시.

061-853-0003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
 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강진 삼흥리 가마터 밭굴 유물전=6월 30일
 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강진 삼흥리 가마터에서 출
 토된 유물 100여점 전시.

▲'온나 사진전=6월1일~7일까지 롯데화랑.

▲신명자 개인전=6월1일~7일까지 무등갤러

리 별관.

▲무등조형회전=6월8일까지 자마갤러리.

▲현대시진전 '앵글의 휴머니티'=6월25일까지

시립미술관 분관.

▲영국의 유명한 일기작가 새뮤얼 패퍼스의 일
 기 끝남(1669)

▲교향곡의 아버지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든
 세상 떠남(1809)

▲미국 시인 휴트먼 태어남(1819)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 착공(1891)

▲최초의 치과병원 남대문에서 개업(1894)

▲이화학당, 메이 퀸 대관식 행사 시작(1908)

▲한국독립당, 상해에서 결성(1930)

▲인도 캐타 지방에 진도 7.5의 지진 3만명 사망

(1935)

▲초대 국회, 첫 본회의 개최(의장에 이승만, 부

의장에 신익희 김동원)(1948)

▲동독, 동서 베를린간 경계선 봉쇄(1952)

▲한·미 임여농산물 원조협정 조인(1955)

▲증권 파동 일어남(1962)

▲독일 전범 하이만 처형(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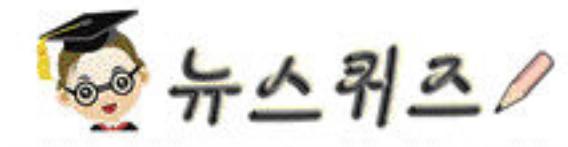
▲문교부, 고입체력장제도 실시요강 발표

(1972)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의장

에 취임(1980)

▲우노 소스케, 일본 수상으로 선출(1983)



14. 독일 월드컵을 앞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마지막 국내 평가전에서 2-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월드컵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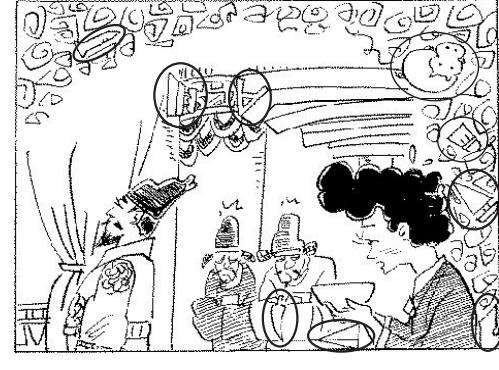
한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G조 마지막 상대인 이 팀을 상상한 모의고사로 치러졌습니다.

이 팀은 어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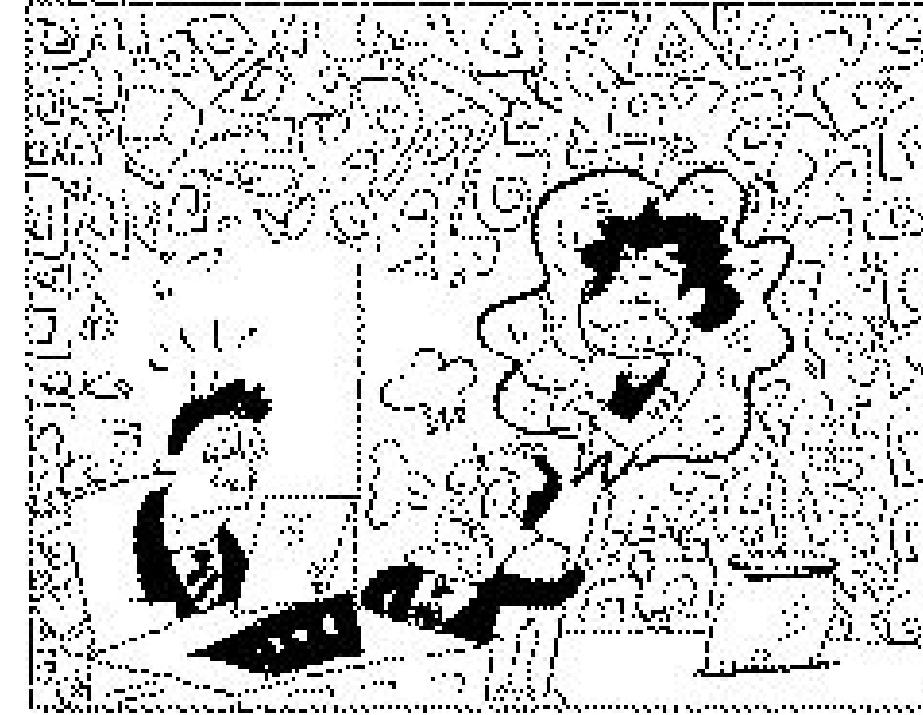
① 스위스 ② 일본 ③ 사우디아라비아 ④ 브라질

숨은그림찾기

< 23 >


▲ 지난주 정답

서틀록, 듯다배, 펜촉, 못, 고추, A자, 종이비행기, 하마, 다리미



(찾) (아) (보) (세) (요) 열대어, 운동모자, 서틀록, 프라이팬, 고추, 은행잎, 깔대기, 우유팩, 못

◀ 바람난 부부

아내에게 극도로 화가 난 한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의논했다.

"외박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친구하고 자고 왔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짧단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당첨자
 심재오·광주시 북구 삼각동
 김연주·순천시 연향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1일(음 5월 5일 庚申)



36년생 時機尙弱이 듯하지만 안내자가 나타난다. 48년생 남의 말 믿고 좋은 것으로 변동하고 하지마라. 60년생 가정주로 진로를 물려라. 72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연결만進行한다. 84년생 꿈꾸도 하지마라.



37년생 황호랑이 코털을 건드는 격이다. 49년생 어선은 아들을 살펴보리. 61년생 금진은 불허하니 서행하며 살펴가라. 73년생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다. 85년생 주변 정돈을 정확하게 판단하라.



38년생 변동으로 情分이 생겨나질 않는다. 50년생 兇多吉少로 괴로움이 많다. 62년생 우선은 어려우나 길가가 발생할 징兆는 있다. 74년생 변동 변화는 마지막 아픔이 더 할 것이다.



40년생 이면적으로 정리하고 하고 있는 사업의 접점을 필요할 때다. 52년생 서둘러 말고 靜虛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더운 객관적인 판단이 서야한다. 76년생 하늘이 협조하니 과욕해도 좋으리라.



41년생 매사에 큰 진전은 없고 멀고 노는 유흥수가 많은 형상이다. 53년생 큰 고생은 없으나 새로운 투자는 금지. 65년생 의외의 재가 생기고 부부간의 정이 새롭다. 77년생 이성간의 문제다. 89년생 수녀처신을 잘해라.



42년생 어려운 시절이 지나니 황후를 위해서 좋은 설계가 필요하다. 54년생 하늘이 노하니 백사에 도움이 없다. 66년생 하늘이 도우니 수업은 무난하다. 78년생 자녀들의 활동이 활기차고 돋보인다.



43년생 대고가 없이 진행하는 행운이다. 55년생 직업이 새로 생기고 가도의 안정이 뒤 따른다. 67년생 마지막 조심성을 더하라 설계는 그려나 진행은 하지마라. 79년생 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말초심을 해야 한다.



44년생 변동은 금불이 투자는 순재만 남는다. 56년생 미루리를 잘하고 괴로움은 금지하라. 68년생 정진이 없어도 내실을 기하라. 80년생 투자와 소비가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하니 심신을 안정하라.



45년생 金氣運이 강하니 간장을 살펴보라. 57년생 하루 종일 조심하라 믿는 도끼가 줌을 출다. 69년생 흥이 복으로 되는 길목에 섰다. 81년생 코와 피부염을 조심하고 유통 위장까지 살펴보라.



46년생 주변을 정리하고 절대로 신사는 점여마라. 58년생 아직은 활발하니 내일을 준비하라. 70년생 희비가雙哭하니 무리수는 두지 마라. 82년생 크게 도움 받는 일은 있지만 내용적 계획은 순조롭다.



47년생 암울했던 과거는 지나가고 안도의 기분이나 급진은 이르다. 59년생 조심스런 외출은 할 수 있으나 아직 재물은 공하다. 71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옛날의 좋은 인사를 찾아보라. 83년생 暗黙이 자생하니 신중히 처리하라.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57>

I totally forgot about it

깜빡 잊었습니다

A: By the way, did you call Sue?
 B: Oh, I totally forgot about it. I'll call her right now. I hope she's still in her office.
 A: You're forgetful these days.
 B: I'm sorry. I'll be more careful.

A: 그런데, 자네 Sue에게 전화 했는가?
 B: 아, 깜빡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 전화 하겠습니다. 부디 그녀가 아직 사무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A: 자네 요즘 건강증이 심하구나.

B: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call = reach = contact

right now = immediately = right away

forgetful = 부주의한, 잘 잊는(=absent-minded)</p